

10/8(금) 욕기 묵상 2

욕기 1:6-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열린 천상회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매우 진귀한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랐을 때 환상 중에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보고 놀라서 황홀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 그리고 사탄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상회의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서 “하루는”의 의미는 ‘평소와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과 같은 의미로서 지금부터 전개되는 말씀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로서 창세기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창 6:2, 4).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인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사탄’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시 89:7,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동산에서도 벌을 받고 이미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탄이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드나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욕 1:5절의 성경 원문을 보시면 ‘사탄’이라는 말이 없고 ‘고발자, 기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 고유명사로 쓰인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역대기서에 가서야 비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대상 21: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 곁에서 욕의 믿음을 의심하고 기소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성경도 6절의 ‘고발자, 기소자’를 ‘사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Job 1:6(NIV), **“One day the angels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with them.”**).

회의 주제

천상 회의의 주제는 욕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다녔던 사탄에게 욕의 신앙을 자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상에서도 우리 모두의 신앙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듭니다(9-10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욕과 그의 가족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심. 둘째로, 욕의 손을 복되게 하심. 셋째로, 소유물의 복을 주심입니다. 사탄은 위의 세가지 이유 때문에 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치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다' 즉 그의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떤 고심도 없이 사탄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시게 됩니다(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욱의 모든 소유물은 시험하도록 하셨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도 그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시험과 고난도 사탄이 모두 주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상과 지상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신자를 향한 공격과 시험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욱의 시험을 일반적인 경우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탄이 시험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욱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친히 자랑하실 정도로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욱과 같은 고난을 받을까 봐 쓸데 없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중남미를 위한 기도:** 중남미의 가난과 독재, 부정부패의 어려움 속에서 자국의 국경을 넘어서 북미로 찾아오는 난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생이별이 이루어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선진국들의 인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학교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Youth Group 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권용봉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